



1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밀란과 홈 경기에서 골을 넣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란 킬러’ 박지성 또 터졌다

피를로 공평 뚝고 후반 빼기골... 맨유 챔스리그 8강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이탈리아 명가' AC밀란을 꺾고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산소탱크' 박지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14분 빼기골을 터뜨려 맨유의 8강 진출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지성의 올 시즌 2호골이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통산 3호골. 맨유는 1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AC밀란을 상대로 웨인 루니가 전반 13분과 후반 1분에 연속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14분 박지성의 추가골과 후반 43분 대런 플래처의 빼기골까지 터지며 4-0으로 완승했다. 지난 1차전과 같이 웨인 루니의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박지성은 좌우 날개로 나선 루이스 나니와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함께 맨유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박지성은 미드필드 지역 중앙에 포진해 피를로를 밀착 마크하면서 AC밀란 공격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

해 맨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미소지게 했다. 선제 결승골과 추가골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루니의 몫이었다. 분위기를 압도한 맨유는 후반 14분 박지성의 빼기골이 터지면서 사실상 승리를 완성했다. 폴 스콜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슛하는 척하면서 불을 쬐러주자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해 들어갔던 박지성이 넘어지면서 슛을 해 AC밀란의 왼쪽 골 그물에 볼을 꽂았다. UEFA 챔피언스리그 40경기에서 출전해 뽑아낸 박지성의 통산 3호골이었다. 박지성의 빼기골로 여유 있게 경기를 펼친 맨유는 후반 43분 플래처가 마무리골을 터뜨리며 4-0으로 경기를 마쳤다.

“올드트래퍼드에서 골 넣어 기분 최고”

■박지성 인터뷰

-시즌 2호골인데.
▲골을 넣어 기쁘다. 항상 특점은 기쁘다. 특히 올드트래퍼드라서 더욱 좋은 것 같다. 4-0의 승리였지만 힘든 경기였다. 첫 골이 일찍 나와서 유리했다고 본다.
-올 시즌 많은 득점을 못했다. 오늘 득점 기대를 했다.
▲항상 경기에 나설 때마다 득점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다. 항상 기대는 한다. 오늘은 좋은 기회가 와

서 득점했다고 본다.
-오늘도 피를로를 봉쇄했다. 퍼거슨 감독이 어떤 지시를 했다.
▲지난 경기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임하라는 지시를 했다.
-오늘 베크에 대한 홈 팬들의 환호가 대단했다.
▲엄청난 분위기였다. 나도 지켜보는 처지였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올 시즌 몇 골을 넣을 것 같는가.
▲몇 경기나 나설 수 있을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웃음)

R 마드리드 8강 좌절 챔스리그 리옹과 비겨

레알 마드리드가 6년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탈락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올랭피크 리옹(프랑스)과의 16강 2차전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던 마드리드는 경기 시작 6분만에 호날두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 30분 피아니치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연합뉴스

“군인정신 똘똘...홈에서 포항 잡는다”

광주 상무 14일 K-리그 홈 개막전...이벤트 다양 관중몰이 나서

광주에 축구 바람이 분다. 광주상무가 14일 오후 3시1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개막전을 갖고 광주팬들 앞에 인사를 올린다. 지난 2월27일 대구와의 시즌 첫 경기를 2-1 승리로 장식했던 상무는 지난주 인천과의 대결에서 2명이 퇴장당한 악재 속에 0-2로 패하며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상무는 홈 관중앞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지난해 리그컵 대회, 아시아축구연맹(ALC) 챔피언 포항과의 역대전적은 1승3무

15패로 상무의 열세다. 게다가 포항은 올 시즌 유렵과 살기현까지 가세하면서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상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위 돌풍을 주도했던 최성국과 최원권의 견제속에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의 가세로 한층 전력이 안정됐다. 포항출신 수문장 김지혁과 올림픽대표 출신 김동현의 입대도 전력 상승에 힘을 보탤다. 광주상무 이강조 감독은 “지난해 부상 선수와 백업멤버가 좋지 않아 중반이후 전력이 무너졌는데, 올 시즌에는 백업 선수들이

든든하다”며 “올 시즌에는 초반돌풍이 아닌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시즌을 마감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상무는 홈 개막전을 맞아 14일을 광주 시민 초청의 날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상무는 무료입장 이벤트와 함께 대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축구화, 축구공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입장 관중 선착순 1만명에게 사랑을 증정한다. 미니백 3000개도 준비했다. 선수들도 경기전 2010년도 사인볼 50개를 관중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하프타임에는 ‘해병대 무적도’ 시범공연도 펼쳐진다. /김여욱기자 wool@

히딩크 월드컵 때 코트디부아르 감독

세계적인 '명장' 거스 히딩크(64) 감독이 서로 다른 나라의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4회 연속 월드컵 무대에 오른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터키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히딩크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전후한 오는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2개월간 '파트타임'으로 코트디부아르 사령탑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히딩크 감독은 1998년 프랑스



대회 때 조국인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아 4강에 진출시키고 2002년 한일 대회에서 한국의 4강 신화 창조, 2006년 독일 대회에서 호주의 16강 진출 위업을 이룬 데 이어 또 한 번 월드컵에서 '마법'을 준비한다.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2회 울리면 반칙패

프로기사회 경기규칙 개정

‘예절의 계엄’ 바둑규칙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프로기사회(회장 최규병)는 최근 기사대의 원회와 규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일부 경기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규칙의 핵심은 기존의 벌점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반칙패로 연결되는 엄격한 적용으로 요약된다.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한결 엄격해졌다. 대회장에서 휴대전화 울리더라도 진동모드였으면 반칙이 아니었던 기존 규정은 벨소리, 진동모드로 상관없이 1회는 경고, 2회째는 바로 몰수게임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강화됐다. 대회 중 휴대전화 전원의 켜짐과 꺼짐의 여부는 이제 프로기사들에게는 승부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부채, 바둑알, 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도 기존에는 1차경고 후 두 번째는 벌점 2점을 공제했으나 새로운 규정으로는 1차 경고 후 2차엔 벌점없이 바로 반칙패하게 됐다. 개정된 바둑규칙은 10일부터 열린 제29기 KBS바둑왕전 예선부터 적용됐다. /연합뉴스

양팀 4강 이상 진출해야 맞대결

허정무 VS 히딩크 만날 확률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코트디부아르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됨에 따라 이번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대결을 펼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팀을 무려 4강까지 끌어올려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던 히딩크가 이번 작장이 되어 만나야 할까?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최대의 이벤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허정무와 히딩크호의 맞대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하지만 양팀이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친다면 4강 이상에서 만날 수 있다.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그리스와 함께 B조에 속한 한국과 브라질·포르투갈·북한과 G조에 속한 코트디부아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갖기 위해

선 양팀이 최소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첫째 관문도 통과하기에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양팀이 조 1위로 진출했을 경우=이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은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가 버티고 있고, 코트디부아르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거대한 두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1위로 나설 확률은 극히 낮다. 하지만 최대의 파란을 일으키며 두팀도 조 1위로 나설 경우엔 3·4위전에서 맞붙게 된다. ▲양팀이 조 2위로 진출했을 경우=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이다. 두 팀이 16강에 올랐어도 맞대결 가능성은 조 1위로 진출했을 때와 같은 결승이나 3·4위전에서 만나게 된다. ▲한국 조 1위, 코트디부아르 조 2위 또는 한국 조 2위, 코트디부아르 조 1위로 진출했을 경우=7월7일 더반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준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ju.co.kr



- 12일(금)
- ▲2010 프로야구 시범경기(LG : 삼성) (12 : 50·SBS스포츠) <백선 : KIA>(12 : 55·MBC ESPN)
 - ▲09/10 V리그(여)<GS칼텍스 : 현대건설>(14 : 10·KBS1)
 - ▲09/10 프로농구 6강플레이오프 2차전(LG : 동부)(18 : 50·SBS스포츠·MBC ESPN)

광주남구문예회관 제1회 기획전시

안중선의 칠서화 전시회

첩뿌리로 그린 일필휘지!!
첩서888 크림속 크림

장소 : 광주남구문예회관
일시 : 3월 3일 ~ 12일
문의 : 062-654-8951 / 016-276-9765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종: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개강 : 3월 2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ISO / KSA 9001

친환경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G 주식회사 지티

엘빙농산물건조기 병해충방제기(원형) 병해충방제기(사각)

각 시·군 대리점 모집
구례, 순천, 광양, 여수, 장성 제외

무등산업 062-371-7095 / 011-601-7701